

■ WTO, 환경위원회 개최

- 지난 주,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의 환경위원회에서는 자유무역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됨
 - 제네바 회의는 금년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된 WTO 환경위원회임
 - 스위스는 WTO와 기후변화협약, 생물안전성협약, 오존층보호협약과 같은 다자간 환경협정(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; MEAs)간의 관계 설정에 관한 주제로 발표함
 - MEAs와 WTO간에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분야를 설정해 그에 관한 결정 사항은 양자간에 그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
 - 유럽집행위원회는 환경과 무역에 관한 사전원칙을 담은 자료를 회람시키고 WTO 내에서 환경보호가 보호주의무역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원칙 적용의 투명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함
 -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국가간에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전 원칙을 제정하기가 난망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한 그러한 원칙이 보호무역주의에 잘못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음
- 일부 유럽국가들은 국제환경법의 발전 및 환경문제의 다변화에 따라 이를 다룰 국제환경사법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
 - 이는 프랑스가 EU 의장국을 맡고 있던 지난 6개월간에 제기하였던 ‘환경 WTO’를 설립하자는 주장의 연장선 상에 있는 내용임
- 금년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분과위원회에서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위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
 -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EU 회원국들의 주장이 강해 환경 문제를 다룰 국제기구가 새로 탄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
 - 최소한 WTO 규정 내에 환경보호 증진에 관한 내용이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

기 준 학(02-3669-4097, hiemjhki@shinbiro.com)